

참 좋은 당신에게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 삶의 온기

2024  
10

도서  
출판 **하영인** HaYoungIn

희망과 용기를,  
사랑과 위로를,  
삶의 온기를 전합니다.

\_\_\_\_\_님께

\_\_\_\_\_드립니다



*Love never fails.*

참 좋은 당신에게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2024  
OCTOBER

# 삶의 온기

03 편집장 이야기

---

05 온기 특 | 기다림  
고난을 이기게 하는 기다림 | 기다림이라는 선물 | 모든 계절이 봄

---

14 온기 산책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

---

18 분위기 특  
행복한 기다림

---

20 온기 인터뷰  
골드시니어클래스 김향아 사회복지사

---

24 용기 특  
불행과 행복의 대관람차

---

28 포대기 특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고향

---

33 「삶의 온기」와 함께하는 온(溫) 플레이스

---

35 원고 응모 안내

---

## 편집장 이야기

30대 청년 시절 호기롭게 세계 일주를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며 새로운 문화와 여러 인종들을 접하게 되면서 사고의 틀이 넓어졌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유익은 그동안 몰랐던 나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사회 구조 속에 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던 모습이 홀로 낯선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인내심이 많다고 여겼습니다. 공부할 땐 엉덩이가 무거웠고 아파도 쉽사리 약을 먹지 않았으며 누군가 불편하게 하더라도 화를 잘 참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혼자 여행할 때의 저는 기다리기를 싫어하고 오래 참기 어려워하며 무슨 일이든 빨리 해치워 버리고 싶어 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품이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일 처리가 빠르고 효율성이 높고 팀원들의 능력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자칫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를 재촉하거나 누군가의 감정에 무관심한 채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과 여유는 우리 삶에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장점이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쿠션이 되어 주는 것이죠.

유난히 오래 기승을 부린 더위와 금세 찾아올 추위의 경계에서 「삶의 온기」가 기다림과 여유를 선사하는 포근하고 폭신한 쿠션이 되길 소망합니다.

김수홍 편집장

이달의 온기톡<sup>Talk</sup>

# 기다림



| 11월 호 |  
**온기**

9월 25일까지

「삶의 온기」가 발행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어렵게 살고 있지만 저처럼 힘든 분들이 힘을 냈으면 해서 글을 보냈습니다.” 최근 지면에 글이 실린 어느 독자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처음 창간호를 발행할 때의 마음을 독자분의 음성을 통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11월 호의 주제는 ‘온기’입니다. 여러분을 온기로 데워 준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12월 호 |  
**손**

10월 25일까지

“어릴 땐 손이 예쁜 사람이 이상형이었는데 어머니 손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느 중년 남성이 들려준 말입니다. 어느 날 곤히 잠든 어머니의 손을 유심히 보았는데, 굳은살이 박여 울퉁불퉁한 어머니의 손을 보면서 ‘손이 못생긴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부위 중 하나인 부지런쟁이 ‘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랑을 건네는 따뜻한 손, 넘어진 누군가를 붙잡아 주는 힘 있는 손 이야기도 좋습니다.

---

**원고 분량** A4 한 장 이내 (원고지 10매 이내)

**보내실 곳** navhayoungin@naver.com (이메일로만 접수)

**메일 제목** 이름\_해당 월 기입(예 : 홍길동\_11월 호) / 주소, 연락처 기입 필수

매월 1명에게 ‘이 달의 온기상’을 수여.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고난을 이기게 하는 기다림

‘왕’하는 진동 소리에 휴대폰을 열어 보니 역시나 카드 대금 독촉 메시지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올려 대는 메시지는 겨우 버텨 내고 있는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무력감을 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노령 연금을 받는 예순을 넘긴 나이에도 하루 예닐곱 대의 차를 세차하는 일은 묘한 만족감을 준다. 겨울에는 온몸이 푹푹 얼고,

여름이면 땀에 젖어 더위를 먹기 일쑤지만 반짝반짝 광이 나는 차를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마치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는 듯해서, 나도 버틸 힘을 얻는다.

마흔여섯인 아들은 열 살 난 아들이 있는 가장이다. 얼마 전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를 맞아 모든 것을 잃었다. 여기저기 남겨진 빚들로 우리 부부의 생활까지도 엉망이 되어 버렸다. 나는 물론 용돈벌이

를 하던 아내의 통장까지 압류됐지만, 아들의 사정을 알고 있기에 뭐라 말도 하지 못하고 속앓이하고 있다.

“도대체 민철 아버지는 어찌자고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든 거야? 며늘아기도 고생이고, 이 나이에 쉴 틈 없이 일해도 정작 손에 쥐는 게 없으니 참...”

“어찌겠어요. 우리 아들인데... 영식이가 우리한테 좀 잘했어요? 그러니 좀 봐 줍시다.”

아내의 한마디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외동인 아들은 어려서부터 우리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음에도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들었다. 쾌활하고 인심 좋은 아내는 ‘우리 아들’을 입에 달고 살았다. 작지만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마련했고 웃음꽃 피는 날들을 보냈다. 그러던 중 친구와의 동업이 부도를 맞아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었고, 당시 고등학생이던 아들은 대학 진학을 미루고 동네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아내를 닮아 싹싹한 아들은 택시가 주요 고객인 주유소에서 늘 웃는 얼굴로 손님을 대해 운전기사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기억력이 좋아서 팁까지 두둑이 받곤 했다. 당시 나는 정해진 일이 없이 이곳저곳에서 닥치는 대로 일하고 있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볼 때마다 나 때문인 것 같아 마주할 수가 없었다.

“저는 괜찮아요. 대학은 나중에 가도 되고, 그동안 뒷바라지해 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는 아들을 볼 때면 더욱 부끄러웠다. 아들은 항상 나 몰래 지갑 속에 10만 원을 채워 놓았는데 어찌다 돈을 쓰면 어김없이 또 채워 놓곤 했다. 그야말로 화수분이었다. 아들이 군에 입대했을 때

는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지금도 머리를 깎은 모습이 눈에 선하기만 하다. 전역 후 결혼을 하고도 우리 부부와 함께 살며 사랑스러운 손주를 안겨 준 아들이다. 성실했던 아들의 사업은 체인점까지 났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어려워졌고 급기야 폐업을 했다. 지금은 그 여파로 아들 내외는 물론 우리 부부까지 신용 불량자가 되고 말았다.

“정씨, 차 들어가요.”

먼지를 뒤집어쓴 승용차가 내 앞으로 다가온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고무장갑을 끼고 비누 거품으로 정성스레 차를 닦는다. 고단한 삶 가운데 조금은 여유가 있기를, 사랑하는 손자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아직은 쓸 만한 두 팔로 살아내는 나 자신을 대견스러워하며 이 또한 살아내야 할 소중한 나의 삶이라 여기며 위안 삼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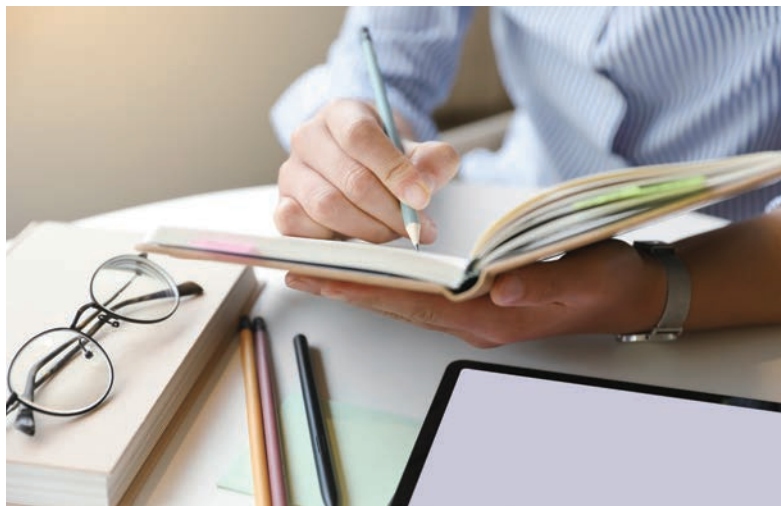
정낙민 님 | 경기도 안산시



# 기다림이라는 선물

첫아이를 낳고 아이가 예뻐서 둘째와 셋째도 낳아 기르며 18년이 지났다. 돌쟁이 아가가 말을 시작하고 걸음마를 배우고 한글을 배우는 과정들은 순간순간 기다림을 통해 경험하는 기쁨이었다. 아이는 뽀뽀 소리 나는 신발을 신고 계속 넘어지면서도 다시 한 손으로 바닥을 잡고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쓴다. 아슬아슬하게 벽에 기대어 서는 순간 엄마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뿌듯해한다. 남들보다 조금 이르게 결혼했다.

동기들이 각자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나만 정체된 듯 홀로 섬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외로운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누군가와 의 대화가 그림기도 했다. 아이들과 정신없이 시간을 보낼 때도 마음속에는 아직 펼치지 못한 꿈의 조각들이 꿈틀대며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했다. 온라인으로 편입을 해 특수 교육을 배우고 실습도 하며 자격증을 취득



하고 놀이 치료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취업을 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걸렸다. ‘아이들은 언제 크지?’ 아직 어린 막내를 보니 나의 꿈들은 멀어져 희미해지고 있었다.

나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책을 읽고 도서관 강좌를 들으며 언젠가 올 그날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했다. 갑작스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정지된 순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세 아이와 지내면서 내 마음은 다시 한 번 답답해졌다. 그러던 중에 동영상 플랫폼에 육아 관련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다. 영상 편집 기술을 익히고 대본도 썼다. 세 아이를 기르면서 경험한 일들과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 방법, 책 읽기 등 16년 동안의 육아 노하우가 다양한 영상으로 차곡차곡 쌓였다. 구독자 수가 늘면서 더욱 실력을 쌓고 싶은 마음에 다양한 영상을 보며 강사들의 강의법을 연구하고, 학교 폭력 예방 센터에서 모집하는 사이버 폭력 예방 강사에도

전하기도 했다.

세 아이는 엄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단단하고 안정감 있게 잘 성장해 주었다. 18년이라는 육아의 시간은 나를 성장시켰고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인내와 기다림을 훈련시켰다. 무언가를 지속하며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힘이 부족했던 내가 달라졌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돌아보면 매일의 점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 어느 큰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세상에는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오늘 하루 역시 기다림은 나의 일상이자 삶의 활력이다. 나에게 기다림은 선물이다.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난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고 싶다.

“진짜 중요한 건 기다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

유지영 님 | 서울시 강남구

# 모든 계절이 봄

새하얀 봄을 기다렸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일상 속 작은 특별함이 다가오길 바라며 무채색인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곤 했다. 양가감정이 들었다. 사랑과 인정을 받길 원했음에도 늘 경계하고 있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얼룩진 마음은 세상에 등을 돌리려 안간힘을 썼다. 그러던 중 어느 영상을 통해 좋은 책이 주는 장점들을 보게 되었는데 순간 마음에 생기가 돌았다. 상처 난 마음을 회복시키는 약이 필

요했다. 숙고하며 고른 책을 구매해 읽기 시작했다. 꼼꼼하게 읽으며 문장 하나하나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데 집중했고 나를 사로잡았던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그렇게 간절하게 바랐던 삶이 조금씩 다가왔다. 좋은 추억과 경험으로 물든 삶이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서툴러도 괜찮아.’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며 나누던 대화가 떠오른다.

“남들보다 조금 더 돌아가는 힘든



길을 택했지만 그만큼 배운 것이 더 많았을 거야.”

수많은 경험들, 수차례의 실패와 좌절이 또 다른 기회였음을 알게 된다. 성장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절차였던 것이다.

요즘 난 설레는 마음으로 매순간을 기다린다. 가족들과 함께 보낼 소중한 일상, 지인과 카페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미소 지을 순간을 그려 본다. 운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도 챙긴다. 그리고 마음속 상처에 약을 바르며 스스로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긴다.

‘힘내자!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오늘의 나보다 더 성장할 내일을 향해 나아가자.’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몸이 기지개를 켜고 사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두 눈은 생기로 가득하다. 하늘이 내게 두 팔을 뻗으면 나도 손을 내민다. 그렇게 서로를 꼭 안아준다.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란 계절에 피어날 행복을 향해 인사를 건넨다.

유예진 님 | 경북 안동시



형산강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삶의 여유를 주는 곳

##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

경주에서 포항으로 진입하는 도로변을 지날 때면 형산강 옆에 자리한 큰 공원을 보며 언제라도 한번 가 봐야겠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러다 강변의 선선한 바람을 느끼고 싶어 차를 멈추고 방문한 곳,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이다.

공원은 입구부터 넓고 환하다. 아이를 업고 있는 할머니상 옆 정자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산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보니 복잡한 도로가 끝없이 펼쳐진 도심과는 달리 느긋한 여유가 느껴진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은 쉼터가 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여유를 누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박자박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을 걸으며 이곳에서 가족과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도 좋겠다 싶었다.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문득 딸아이가 한참 전부터 자전거 타는 걸 가르쳐 달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 가을이 지나기 전에 꼭 아이와 함께 이곳에 와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마음먹어 본다. 아이와 함께 형산강을 바라보며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을 그 날이 기대된다.

하늘도 높고 바람도 선선한 10월이다. 모든 것을 품을 만큼 넓은 형산강을 바라보며 바쁜 생활 속에 쉼표를 찍어 보는 시간,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에서 가져보자.





###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은?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164에 위치하고 있다. 형산강의 역사, 문화, 환경 등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포항과 경주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1월에 준공된 공원이다.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형산강 유역은 조선시대 3대 보부상 장터로 부조장이라 불렸다. 각지에서 상인들이 모여들어 활발한 교류가 펼쳐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한다. 장터에 조성된 역사문화관광공원이 과거와 현대를 이어 주는 문화의 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글/사진 윤지은

분위기 톡<sup>Talk</sup>

# 행복한 기다림





첫아이의 성장 사진을 촬영했던 어느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의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만삭 기념 촬영을 요청했습니다. 기억 속에 귀여운 아기로 남아 있던 첫째아이는 딱 그 나이에 어울리는 개구쟁이로 자라 있었습니다.

가을이 땅으로 내려와 온통 아름답게 물들어 있는 아름다운 시간, 따뜻한 오후 햇살을 맞으며 즐겁게 가족 사진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둘째아이가 태어나 훗날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을 느낄까 생각해 보니 기다림의 시간이 참 행복해집니다.

글/사진 서상원 | 포토그래퍼

온기 interview

창포종합사회복지관

# 골드시니어클래스 김향아 사회복지사



시니어들의 삶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는 곳이 있다. 창포종합사회복지관 골드시니어클래스다. 단순히 여가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시니어들이 새로운 꿈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열리는 공간이다. 이들이 함께 배우고 나누며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채워 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김향아 사회복지사를 만나 보았다.



김향아 사회복지사

#### Q 자기소개

마을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노력하는 창포종합사회복지관 김향아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역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Q 골드시니어클래스의 취지는?

한국은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의 숙련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포항은 산업도시로 은퇴자들이 높은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기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골드시니어클래스는 기존의 여가 중심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시니어들이 전문 자격 취득을 통해 경력을 재개발하고 사회적 기업의 출현을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 Q 골드시니어클래스 프로그램이 궁금한데?

현재 바리스타반 교육 과정을 마친 시니어들은 바리스타로 취업하거나 창업 준비를 하고 있고 외부 단체와의 협업 요청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그간의 사회 활동을 통해 넓은 네트워크와 경제적 여유를 갖춘 분들이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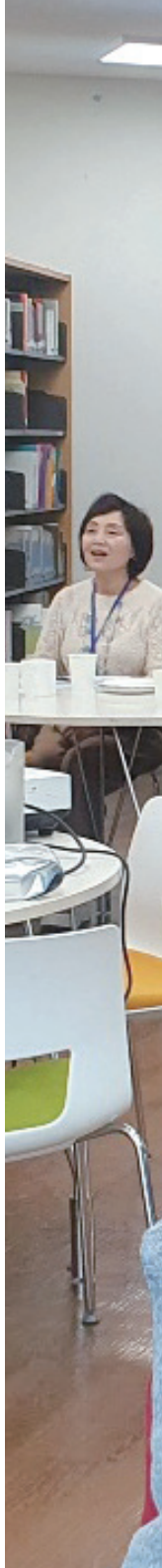
리스트 공부를 통해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활기찬 노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웰다잉반은 고인과 유가족을 위로해 온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 존엄한 삶과 생명 존중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국내 최초로 목회자 중심의 웰다잉 2급 자격증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그 의미가 큼니다.

IT반에서는 스마트폰 활용부터 블로그 개설까지 다양한 IT 기술을 익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이 동영상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작가반을 통해 한 권의 책을 출판하는 작가로서의 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문예창작 공모전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자기표현의 기회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들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나누며 풍성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 예정입니다.

#### Q. 나누고 싶은 한마디

그동안 시니어들과 함께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무척 많았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반에 참여한 시니어들이 핸드드립 2급 자격증을 취득해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특히 창포종합사회복지관 경로 식당에서 시장님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며 그동안 배운 기술을 나누는 모습은 골드시니어클래스가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었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향후 에스프레소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시니어들의 경륜과 지혜는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보석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글\_강미정 사진\_골드시니어클래스







# 불행과 행복의 대관람차

그날이 어제처럼 선명하게 기억난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무척이나 맑은 날이었다. 신혼 1년 차, 그토록 원했던 아기 천사도 찾아와 주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랜만에 휴일을 맞은 남편과 고깃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뽕뽕해진 배를 두드리며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큰 벽보가 눈에 띄었다.

우린 어안이 병병해져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다 일단 휴대전

화로 사진을 찍고 집으로 들어갔다. 빌라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서로 모여 교류하자는 내용이였다. 다함께 옥상에 모여 이야기를 나눠 보니 40세대가 넘는 오피스텔의 집주인이 모두 같은 사람이었고 진짜 집주인은 따로 있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금리가 많이 오르면 빚을 감당하지 못해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깡통전세였다.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언니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전세 사기 피해에 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었다. 뉴스를 보면서 안타깝다고만 생각하고 이내 잊어버렸는데 내가 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막상 나의 일이 되고 보니 처음엔 그저 멍했고 점점 현실이 피부로 느껴지자 눈물이 앞을 가렸다.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여서 더욱 답답하고 화가 났고 좀 더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냈다. 결혼 전까지 늘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남편과 집을 얻어 행복한 날들만 펼쳐질 거라 생각했는데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양가 부모님에게 소식을 전하니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우리 부부를 꼭 안아 주었다.

“아직 젊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부모님은 인생 공부 한번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자며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위로해 주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들이 오갔고 우리의 문제를 여러 기관에서 도와주려고 해서 그나마 조금 마음이 놓였다.

아기는 마음이 아팠던 우리를 위로해 주려는 듯 별다른 이벤트 없이 39주를 채우고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다. 아프지 말고 평탄하게 잘 커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태명을 ‘순탄이’로 지었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 주어 감사할 따름이다. 이전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꼬물거리며 쑥쑥 자라는 아기를 바라볼 때면 이상하리만큼 힘이 솟아난다. 경제적으로는 힘들어졌어도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탄탄해진 것을 느낀다.



INOLMI THEME PARK



작디작은 아기는 불행하다 느꼈던 우리의 마음을 희망으로 바꿔 주었다. 행복과 불행은 함께 온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처음 엘리베이터에 붙은 벽보를 보던 순간은 너무도 절망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괴로움도 무뎌지고 있다. 남편과 아기를 보며 더 힘을 내려 한다.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빛이 생겼지만 남편과 함께 힘을 모아 조금씩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환한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얼마 전 쉬는 날 남편과 아기와 함께 월미도 공원에서 대관람차를 바라보았다.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지만, 결국엔 다시 위로 올라가 푸른 하늘에 가까워지는 관람차와 우리네 인생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면서 마음이 땅으로 푹 꺼지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때마다 대관람차를 떠올릴 것이다. 불행이 닥쳐와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도 희망을 품으면 언젠가는 다시 저 푸른 하늘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송현옥 님 | 인천시 미추홀구

#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고향

나는 필리핀에서 태어났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아빠가 지어준 이름 아모르, 시어머니가 지어준 한국 이름 권현경, 두 이름 모두 내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빠는 내가 세 살 때 돌아가셨고 그 후 엄마는 혼자서 우리 네 자매를 키웠다. 엄마는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 헌신했다. 늘 딸들에게 사랑과 온기를 전해 주었고 믿음과 인내심을 가르쳐 주었다. 엄마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을 것이다. 엄마

덕분에 항상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필리핀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소중한 기억을 많이 남겼다. 친구들과 함께 뛰놀던 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낸 따뜻한 저녁, 축제에서 보낸 흥겨운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필리핀의 자연에서 놀던 추억은 나에게 큰 위로와 즐거움이 된다. 무엇보다 엄마, 자매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무척 소중하다.

11년 전 처음 포항에 왔을 때는 낯선 언어와 문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도움

### ‘포대기 토크(Talk)’

모국을 떠나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아가는 결혼 이민 여성들의 삶을 공감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코너입니다.

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아름다운 자연과 바다는 큰 위로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포항에 정착하는 동안 포항시가족센터도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언어 교육, 문화 교류 활동, 가족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자조 모임을 통해 더욱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필리핀과 한국 두 나라는 모두 내가 사랑하는 고향이다. 두 나라에서의 삶을 통해 각 나라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엄마의 희생과 사랑도,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크나큰 보람과 행복을 안겨 주었다.

권현경 님 | 경북 포항시

# 온기를 전해주세요.

「삶의 온기」 후원 계좌  
정기 후원 문의

「삶의 온기」는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밝고 건강한 문화를 나누기 위해 무료로 발행되는 월간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조금만 격려해 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베풀 끝에 선 듯한 절망감으로 힘겨워하는 누군가에게 온기와 희망을 전하는 월간 「삶의 온기」는 후원을 통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삶의 온기」를 읽고 마음이 따뜻해졌다면 더 많은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오래도록 식지 않는 훈훈한 온기가 만들어집니다.

국민 821701-01-597990 (예금주 : 도서출판하영인)

이메일 [nahayoungin@naver.com](mailto:nahayoungin@naver.com)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 병원, 요양원, 교도소 등  
월간 「삶의 온기」를 구독하고 싶은 분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 온기를 담아 주시는 분들

「삶의 온기」는 독자님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순 강민경 강지은 강창윤 강혜진 권미순 권복연 권성윤 권영광 권창남 김경화 김광숙 김광희 김동욱 김동환 김명삼 김선옥 김성훈 김성희1 김성희2 김승훈 김시홍 김영애 김정희 김진섭 김철규 김현정1 김현정2 김혜영 류나현 문미성 박난향 박동섭 박명자 박미경 박선령 박성혜 박소영 박용식 박윤하 박정미 박지원 박진화 박태진 박후남 박훈숙 박희영 배옥분 서광식 손미경 손은자 심정희 안기원 안명희 안상희 안세정 안유리 안중기 양승봉 오정희 유지철 유태준 윤성환 윤원희 윤정배 윤희은 이경복 이미래 이상아 이소영 이승재 이승희 이연아 이영희 이오범 이윤호 이정진 이정희 이혜빈 이호형 임삼미 임영선 장명희 장무수 장미정 장은경 장예찬 장혜수 전순하 전애경 전은주 전지후 정경화 정성신 정승수 정정희 정진철 정혜림 조관호 조연주 조은혜 주명화 주영희 지미경 최금희 최승환 최인숙 최재기 최정순 허임옥 홍경애 황명철 청하에그린



숲 스테이 도천

Forest Stay DOCHON



## 숲스테이 도천

도천숲 안의 방갈로에서  
자연과 쉼을 만끽하세요.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N** 네이버 플레이스

"조이풀빌리지"

검색

 joyvil\_company



• 주소 - 경북 영덕군 남정면 319

• 예약&문의 - 010.3093.0811



Cheongha  
EggGreen

포항시우수농특산물  
H A C C P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청정농장



# 청하에그린



포항시 북구 청하면 동해대로 2255

054)232-1144 홈페이지 : [chunghaegg.com](http://chunghaegg.com)

농장직관 / 무항생제 / HACCP / 부활절 구운계란

# 「삶의 온기」와 함께하는 온(溫) 플레이스



**아델헤어**  
T. 054-610-6684 (장성본점)



**만나다, 마음**  
T. 054-255-4404 (양덕점)



**청춘 착한 먹거리**  
T. 010-5657-4796 (우현점)



**도쿄앤필**  
T. 054-255-1103 (포항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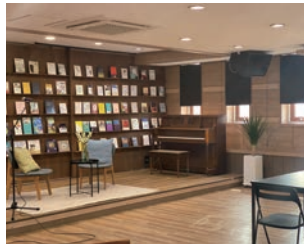
**카샵 본점 디테일링 / 광택**  
T. 010-4994-0094 (죽도동)



**다운검도관**  
T. 010-4134-8448 (양덕동)



**유강엄마손 김밥**  
T. 010-8688-0462 (죽도시장내)



**조이풀빌리지 (북함문화예술공간)**  
T. 054-733-2015



**해가림 (침구/커튼)**  
T. 054-281-1177 (용흥점)

「삶의 온기」 구독자들을 위한

## 특별할인

### 청춘 착한 먹거리

T.010-5657-4796 (우현점)

1만 원 이상  
구매 시 5% 할인

사용 기한 : 2024.10.31

삶의  
온기

### 만나다, 마음

T.054-255-4404 (양덕점)

커피 전 메뉴  
테이크아웃 시  
1,000원 할인

사용 기한 : 2024.10.31

삶의  
온기

### 아델헤어

T.054-610-6684 (장성본점)

펌/염색 시술시  
1만 원 할인

사용 기한 : 2024.10.31

삶의  
온기

### 다운검도관

T.010-4134-8448 (양덕동)

1일 무료  
수강권

사용 기한 : 2024.10.31

삶의  
온기

### 카샵 본점 디테일링 / 광택

T.010-4994-0094 (죽도동)

모든  
시공 10% 할인

사용 기한 : 2024.10.31

삶의  
온기

### 도쿄엔펠

T.054-255-1103 (포항점)

전 품목  
5% 할인

사용 기한 : 2024.10.31

삶의  
온기

### 해가림 (침구/커튼)

T.054-281-1177 (용흥점)

전 품목  
10% 할인

사용 기한 : 2024.10.31

삶의  
온기

### 조이풀 빌리지 (복합문화예술공간)

T.054-733-2015

방문객 1인 1음료  
무료 제공

사용 기한 : 2024.10.31

삶의  
온기

### 유강 엄마손 김밥

T.010-8688-0462 (죽도시장내)

전 품목  
10% 할인

사용 기한 : 2024.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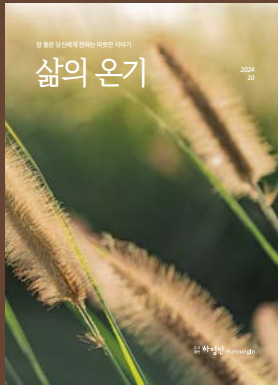
삶의  
온기

# 월간 「삶의 온기」 원고 응모 안내

월간 「삶의 온기」에서는 매월 주제가 있는 ‘온기 톡(Talk)’ 원고 이외에도 자유로운 주제의 시나 에세이 등 좋은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면서 경험한 잊지 못할 순간들, 깨달음, 쉽게 꺼내지 못한 아픔까지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손을 잡아 주면 좋겠습니다. 문학적으로 완성도를 갖춘 글이 아닌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진솔한 글을 환영합니다.

<b>원고 분량</b>	A4 한 장 이내(원고지 10매 이내)
<b>원고 접수 및 문의</b>	navhayoungin@naver.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일 제목 : 이름_해당 월 기입(예 : 홍길동_1월 호)</li> <li>• 원하실 경우 가명으로 실어 드립니다.</li> <li>• <u>메일에 이름, 주소,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u></li> <li>• 원고는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li> </ul>
<b>원고 접수 기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 호 : 9월 25일까지</li> <li>• 12월 호 : 10월 25일까지</li> </ul>
<b>원고 채택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집부에서 이메일로 연락을 드립니다.(매월 초)</li> <li>• 발행된 「삶의 온기」 3권을 발송해 드립니다.(원고 접수 시 기입한 주소로 발송)</li> <li>• 원고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li> </ul>
<b>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감일 이후 투고된 원고는 접수에서 제외됩니다.</li> <li>• 채택된 원고는 편집 방향에 따라 운문할 수 있으며,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li> <li>• 원고는 다른 곳에 발표한 적 없어야 하며,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원고료를 환수할 수 있음)</li> <li>• 매월 1명에게 '이달의 온기상'을 수여,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li> </ul>

# 삶의 온기를 만들고 전하는 사람들



「삶의 온기」는  
더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밝고 건강한 문화를 나누기 위해  
무료로 발행되는 월간지입니다.

2024  
OCTOBER

통권	제 36호
발행	김수홍
편집	강창윤 강혜은 김설향 박영애
디자인	김윤정
홍보	김세정 김혜영 임삼미 전은주 허임옥
취재	강미정 권민애 서영애 윤지은
자문	스티브 박
발행일	2024년 10월 1일
발행처	도서출판 하영인 X (주)투웹브마운틴즈
등록	제504-251002023000001호
주소	포항시 북구 대신로 33 601호
후원 및 정기구독	054) 270-1018

블로그 <https://blog.naver.com/navhayoungin>

이메일 [navhayoungin@naver.com](mailto:navhayoungin@naver.com)

인스타그램 도서출판 하영인 @hayoungin7 | 월간 「삶의 온기」 @ongi\_magazine

당신을 향한 사랑 있기에  
기다림마저 즐겁습니다.

